디젤 앞지른 LPG車… QM6 등 SUV 라인업 관심 집중

전년比 연료별 판매량 138% '껑충'
유지비·친환경·세제혜택 등 주효
중형 SUV 시장선 QM6 LPe 유일

LPG 자동차가 탄소중립과 고유가 시대와 맞물리면서 다시 한 번 조명 받고 있다.

LPG 자동차는 미세먼지 배출이 적으며 액화된 석유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기존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과 비교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다. 여기에 최근 가솔린과 디젤 가격이 7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준다.

20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등록 대수 보면 LPG 자동차 판매가 부쩍 증가한 걸 알 수 있다. LPG 자동차가 1만1730대 팔리면서 사상 처음으로 디젤차(1만1523대)를 앞질렀다. 1년 전 연료별 판매량을 봐도 증가한 연료는 하이브리드(39.4%)와 LPG(137.7%)뿐이다. 가솔린과 디젤, 전기

QM6 2.0 LPe /르노자동차코리아

차는 모두 감소했다.

이는 올해 초부터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가솔린과 디젤 가격이 상승한 영향도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15일 현재 가솔린 전국 평균 가격은 1638.48원이고 서울 평균은 1714.55원이다. 반면 LPG 가격은 4개월 연속 큰 변화 없이 970원을 유지하고 있다. 가솔린과 LPG 가격이 차이가 커질수록 소비자들은 LPG 자동차에 관심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여기에 LPG 차량의 친환경성도 소비 상승을 이끌고 있다. LPG 차량은 미세먼지 생성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같은 경우 차량 대비 93분의 1 수준으로 적게 배출한다. 덕분에 전국 공영주차장(30~50%)과 공항 주차장(20~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LPG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완성차 업체들도 서둘러 LPG 모델을 추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SUV 시장에선 LPG 모델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중형 SUV 시장에선 르노코리아 QM6 2.0 LPe가 유일하다.

르노코리아 QM6 판매량을 봐도 LPG 모델에 대한 시장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QM6는 2.0L 가솔린과 2.0L LPG 두 개의 파워트레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QM6 판매량의 70% 이상이 LPG 모델일 정도로 많이 팔린다. QM6 LPG는 최고출력 140마력, 최대토크 19.7kg·m를 낸다. 가솔린 모델(144마력, 20.4kg·m)과 거의 비슷한 성능이다.

다만 에너지 밀도가 낮은 LPG 연료 특성상 연비(8.9km/L)가 가솔린 모델(12.0km/L)에 비해 낮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연료비가 낮아 가솔린 모델에 비해 연간 2만 km를 달린다고 가정하면 약 70만원 정도의 유류비를 아낄 수 있다.

LPG는 가솔린이나 디젤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오는 것도 장점이다. 정부도 디젤 대신 LPG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에 차량용 LPG 관세를 3%에서 0%로 인하하기로 했다.

QM6가 소비자들에게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다. 국내에서 특허 받은 도넛 탱크 마운팅 기술로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기존 트렁크에 있던 LPG 탱크를 트렁크 바닥 스페어타이어 공간으로 옮겼는데, 탱크를 차체 바닥이 아닌 사이드 빔에 고정했다. LPG 탱크가 차체에서 떨어져 있으니 주행 중 발생하는 충격도 줄이고, 뒤에서 발생하는 추돌 사고 시에도 훨씬 안전하다. 또한 탱크가 차체와 닿으면서 생기는 소음과 진동을 줄였고, 연료펌프 소음의 실내 유입도 막을 수 있었다.

한편 르노코리아는 QM6 24만 대 판매를 기념해 3월 내에 QM6를 출고하는 고객 240명에게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파라다이스 시티 숙박권, 신세계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화에어로, 2032년 달 착륙선 보낸다

차세대발사체 사업 협상대상 선정
"사명감·책임감 가지고 역량 집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함께 누리호(KSLV-Ⅱ)의 뒤를 잇는 차세대발사체(KSLV-Ⅲ)에 개발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조달청이 공고한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사업에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2일 진행한 '기술능력 적합성 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 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향후 항우연과 최종 협상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달 착륙선 등 국가 우주개발 로드맵의 주요 탑재체를 우주로 보낼 새로운 발사체를 개발하는 국가우주계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1사업장에 위치한 누리호 엔진 조립동 전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획의 핵심 사업이다. 민간 기업이 항우연과 함께 설계부터 발사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본격적인 민간 주도 우주경제 시대를 여는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차세대발사체는 대형위성 발사 및 우주탐사 등을 위해 누리호 대비 대폭 향상된 성능으로 개발된다. 총 3차례 발사를 통해 2032년에 달 착륙선을 보내는 도전적인 임무를 맡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99년 과학관측로켓(KSR-Ⅲ) 개발을 시작으로 26년간 축적한 엔진 기술력과 누리호 고도화사업을 통해 획득한 중대형 발사체 제작 역량을 갖췄다. 이번 차세대 발사체 사업으로 확보한 기술과 경험으로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이번 사업은 어렵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하는 국가적 과제로 국내 참여 기업들과 함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응원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최윤호 사장 "전고체 전지, 2027년 양산"

(삼성SDI)

삼성SDI, 정기 주주총회

보통주 1000원, 우선주 1050원 배당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사진**)이 "전고체 전지는 계획대로 2027년 양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2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 임직원의 노력, 파트너사와의 협력, 주주들의 성원에 힘입어 '2030년 글로벌 톱티어 회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삼성SDI는 서울시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주주 및 기관투자자, 최윤호 대표이사 사장 등 주요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4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세 가지 안건에 대해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1호 의안 '제54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에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승인이 진행됐다.

배당액은 보통주 1000원, 우선주 1050원으로 결정됐다.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에서는 사내이사로 김종성 삼성SDI 경영지원실장(부사장)을 재선임하고, 박진 삼성SDI 중대형전지사업부장(부사장)을 신규 선임했다.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서는 이사 보수한도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120억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삼성SDI는 주주들의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주주총회 현장에 별도의 전시부스를 마련하고 사업부문별 핵심 제품을 전시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STX

월드와이드챔피언 SPA 체결

'트롤리고' 기반 인도시장 공략

글로벌 종합상사 STX가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 '트롤리고'를 기반으로 인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STX는 인도를 포함한 서남아시아 시장에서 원자재 거래 경험이 많은 글로벌 트레이딩 기업 '월드와이드챔피언'과 STX 아시아의 지분 100%를 매각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했다고 19일 공시했다.

STX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파트너사와 함께 인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트롤리고 영향력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LG화학, PEC 적용 화장품 용기 공개

(폴리 에틸렌 카보네이트)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2024' 참가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고객 확보

LG화학이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시장 개척에 나선다.

LG화학은 오는 21일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개최하는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2024(Cosmoprof Bologna 2024)'에서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를 전시해 고객 확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코스모프로프 전시회는 뷰티 산업의 소재, 패키지, ODM, 브랜드 등 약 3000여개의 코스메틱 회사가 참가하는 글로벌 최대 뷰티 산업 박람회다.

LG화학은 친환경 파트너사인 코스맥스의 에코존에서 이산화탄소로 만든 차세대 친환경 소재인 'PEC(폴리 에틸렌 카보네이트, Poly Ethylene Carbo

LG화학의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PEC(Poly Ethylene Carbonate) /LG화학

nate)'를 적용한 화장품 용기를 첫 선보인다.

PEC는 공장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을 사용해 만드는 차세대 친환경 혁신 플라스틱이다. 주로 화장품 용기와 식품 포장재에 사용되며 다른 플라스틱 제품과 섞어서 부드러운 필름부터 단단한 케이스 등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차현정 기자

현대로템, 도시철도·수소 에너지 역량 뽐내

대만 스마트시티 서밋&엑스포 참가

현대로템이 대만 스마트 시티 박람회에서 도시철도 사업 경쟁력과 미래 수소 에너지 기술력을 선보인다.

현대로템은 20일 대만 타이페이 및 가오슝에서 개최되는 '2024 스마트 시티 서밋 & 엑스포'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각 도시별로 주제와 기간을 나눠서 개최된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돼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타이페이 행사는 교통, 물류, 도시 등이 주제이며 가오슝 행사에서는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의 일정으로 스마트 교통, 탄소중립 등의 주제를 다룬다.

현대로템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만 시장에 '도시철도 차량 및 시스템의 강자'이자 '미래 수소 에너지의 선두주자'로서 확보하고 있는 사업 역량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이에 따라 현대로템은 각 도시별 박람회 주제에 맞춰 타이페이에서는 도시철도 사업을, 가오슝에서는 미래 수소 사업을 중심으로 전시관을 구성한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당사의 도시철도 사업 경쟁력은 물론 미래 수소 에너지 기술 역량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